

“5·18 생존자 죽음 내몬 폭력은 현재진행형”

김명희 경성대 교수 ‘5·18 자살과 트라우마의 계보학’ 주제 발표 1980년대 저항적 자살·2000년대 고문 후유증 등 46명 극단적 선택 5·18평화 폭력 여전...트라우마 치유법은 진상규명·가해자 처벌

5·18민주화운동의 생존자들이 항쟁 3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가폭력’과 ‘사회 집단적 폭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민주화운동 직접 참가자들과 목격자들은 당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음은 물론 심지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5·18 연구자들은 기존 청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사자들을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않도록 새로운 청산방식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지난 15일 ‘5·18연구의 계보학’을 주제로 열린 ‘5·18 39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김명희 경성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1980년 이후 2019년 10월까지 5·18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46명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5·18 자살과 트라우마의 계보학: 치유되지 않은 5·18’을 주제로 발표한 김 교수는 ‘연도별 5·18참가자 자살자 현황’을 공개했다.

자살자 수는 1980년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1990년대 4명, 2000년대 13명, 2010년대 4명이었다.

김 교수가 공개한 현황은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2008년까지 연구해 2010년 발표한 자료에 이후 신문 보도 사례를 추가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것이 이정도지만 실제 자살자 현황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후속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5·18 직후 10년간 늘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행정부시장·감사위원장 영장 기각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직권 남용 관리행위사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운영위원장 감사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이창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정씨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 상황,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해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

선원 실종·엽사 총상...전남 사건사고 잇따라

주말사이 전남지역 곳곳에서 실종 등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후 5시 15분께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의 한 부두에 정박중인 P호(2658t) 선원 A(35)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급파하고, 잠수 요원을 투입해 선박 및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밤 11시 30분께 P호에 복귀 후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에서는 멧돼지 포획에 나선 엽사가 동료의 탄환에 맞았다.

17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 20분께 장성군 남면의 한

가림막 벗겨낸 전일빌딩 5·18 헬기 사격 등 총탄 흔적 고스란히

5·18민주화운동의 생생한 현상이었던 전일빌딩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공사 가림막이 벗겨지며 1980년 5월 신군부의 헬기 사격 등에 의한 총탄 흔적이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광주일보 옛 사옥이었던 전일빌딩은 5·18 당시 헬기에서 쏜 것으로 보이는 수백 개의 총탄 흔적이 남아 있는 5·18의 상징적인 장소로, 지난 2월 기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지난 15일부터 도색 작업이 시작되면서 17일 오후 10시부터 4층까지의 가림막이 벗겨지는 바람에 건물 외벽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건물 외벽에 남은 탄흔들이 잘 보이도록 주황색 형광페인트로 탄흔 주변을 원형으로 표시했다. 더불어 탄흔 옆에는 2017년 국과수 감정당시 감정 번호로 보이는 ‘8-1’, ‘7-3’ 등의 숫자를 표기한 철판이 부착됐다.

한편 전일빌딩 리모델링은 사업은 국비 130억원과 시비 354억원이 반영된 총 사업비 484억원이 투입되며,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9321㎡ 규모로 5·18 40주년인 내년 3월 개관할 예정이다.



즐거움 '어르신날DAY' 광주시 서구가 주최한 가을잔치 '어르신날DAY'가 16일 오후 양동 커뮤니티센터 예정부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 어르신들이 울음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택배기사들 노동자 맞다” 법원 첫 판결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지난 15일 C대한통운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명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아파트 승강기에 끼여 수리업체 직원 숨져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목포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수리업체 직원 A(38)씨가 2층과 3층 사이에서 승강기에 끼여있는 채로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직 근무중 엘리베이터 고장 신고를 받고 아파트를 방문, 홀로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마친 순천 수험생 아파트서 투신 숨진 채 발견

지난 14일 오후 6시 10분께 순천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A(19)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고등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에 합격해 이날 수능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모델서 기다린다’ 여경에 60차례 문자 보낸 경찰관 해임 적법

○...여성 신임 경찰관을 상대로 ‘모델서 기다린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60여 차례에 걸쳐 전송한 경찰관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

○...17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에 따르면 2016년 동료 신임 여경 B씨에게 몸을 기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가 하면 전화로 ‘모델에 방 잡아 놓고 기

다린다’며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전남지방법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기각했다는 것.

○...재판부는 “늦은 시간 전화로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고 말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성희롱이 명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3.1%~8.15%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